



공·금·힘·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 사 양 ● ●

Q 자돈구간에서 폐사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약 50일~70일령 사이의 자돈들에게 폐사가 많이 나옵니다. 증상은 헐떡헐떡 거리면서 슬슬 마르기 시작하면서 죽습니다. 그 외의 자돈들은 상당히 잘 크지만 한방에 18두씩 넣는데 한 두 마리씩 그런증상이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아목사실린+해열제+겐타마이신을 주사하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는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원인과 처치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음수에 살모넬라 균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도 궁금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외부 증상만으로는 확진이 어려운 질병이거나 여타 환경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농장에서 유사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외부 소견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저의 경험상 농장별 발생 유형이나 주 증상은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돈사 구조에 따라(슬러리, 스크레파, 평사 등) 또는 환기 방식이나 급이 방법(액상, 습식, 건식 등), 백신 접종 종류에 따라 발생 유형이 틀릴 수 있으나 50~70일령이면 일반적으로 소화기질

환이 먼저 발생 후 2차 감염으로 호흡기질환이 복합감염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바이러스 질환까지 합세했을 경우 항생제 요법은 어렵습니다.

우선, 소화기질환 체크를 해보시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혹, 살모넬라 감염 시 세포내 기생으로 컨트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제 또한 사료첨가로는 어렵습니다.

귀 농장에서 잘 안쓰던 항생제(세티푸어제나 아미카신, 겐타마이신 등)를 직접 주사하거나 음수투약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고급유기산제(글루콘산 등) 투여와 정기적인 음수소독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두가지로 해결하거나 한두번의 방문이나 처방으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우선순위(소화기질환 차단)를 정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잘라내기식 치료를 해야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위 전문가에게 확진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변식 및 육종 ● ●

Q 모든 이유 후 모든 종부전 까지 해야 할 체 크리스트 부탁드립니다.

〈심금섭 연암축산대 축산과 교수〉

A 이유후 모돈의 관리포인트는 정상적인 재귀발정으로 인한 성공적인 수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유후 모돈의 재귀발정은 평균 5일에 오게 되지만 개체에 따라서 빨리 오는 모돈(평균 이유후3일)과 늦게오는 모돈(평균 7일)도 있습니다.

모돈의 재귀발정은 분만사에서 모돈의 사료섭취와 분만전 모돈의 체중과 이유후 모돈의 체중이 감량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모돈의 체중이 감소되는 것은 포육기간동안 모돈이 충분한 사료를 섭취못한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자주 발현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시원한 물과 잔류된 사료의 신속한 제거등을 통한 모돈의 사료섭취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비유량의 증진과 이유후 재귀발정을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수태와 높은 산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발정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발정 증상을 확인하고 기록하여 교배시기에 번식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재귀발정을 보인 모돈은 발정 개시후 20시간 경과후 1차 수정을 실시하고 12시간 간격으로 2차 수정을 실시하면 되지만 빠른 재귀발정의 경우는 3회 교배를 실시하는것이 더 효과적이고 늦은 재귀발정의 경우는 발정개시후 12시간후에 1차 수정을 실시하고 8시간후에 2차 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저희 농장은 AI센터에서 구입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를 서로 다른 정액으로 주입을 했을 때 착상과 번식 성적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보돈이 발정이 오지 않는데

발정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금섭 연암축산대 축산과 교수〉

A 1, 2차 주입하는 정액은 비육정액일 경우도 동일한 정액이나 동복의 웅돈의 정액을 주입하는 것이, 한배에서 태어나는 자돈의 유전적 능력의 차가 거의 없고 체형도 동일하여 관리에 용이합니다. 착상과 번식성적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후보돈이 발정이 오지 않는 경우는 영구황체가 있어 난포발달이 되지 않아 발정이 안 올 수도 있고 영구황체가 없는 경우도 난포발육을 시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발정이 지연되거나 미약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영구황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영구황체를 퇴행시키기 위해 루테라이제를 주사한 후 만 3일후 난포발육을 위한 목적으로 PMSG를 700단위 근육주사를 실시하면 5일 이내에 발정이 오게 됩니다.

지속발정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 교배시 hCG를 700단위 근육주사하여 배란을 유지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도 발정이 오지 않는 후보돈은 난소기능부전에 걸려 있을수 있어 불임돈으로 판명하여 도태시켜야 합니다.

호르몬 주사는 유효기간 내에 호르몬을 사용하고 냉장보관 하여야 하며 천천히 주의깊게 주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양동**

